

# 인문과 관광 만남 '곡성 심쿵 여행' 출시

군, 지역 5개 여행사와 협약  
버스 임차비 지원·입장료 할인  
의병장 전적지·6·25 현장 방문  
기차마을·레일바이크·천문대 관람



이상철(왼쪽 네 번째) 곡성군수와 지역 여행사 5곳 대표가 지난 26일 군청에서 '곡성 심쿵 여행'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명소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관광을 즐기는 '곡성 심쿵 여행'이 정식 상품으로 출시된다. 곡성군은 지난 26일 지역 5개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곡성 심쿵 여행을 정식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 여행상품은 지난 2월 곡성군이 직영 운영하며 호응을 얻었다. 곡성 심쿵 여행은 하루 동안 지역의 역사적 장소와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천문대 등 대표 관광 명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한 '인문 여행'을 떠난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 전적지를 찾고, 삼인동 6·25 전적지를 방문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곡성 천문대를 관람하고,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레일바이크 등을 즐긴다. 인문 여행지와 천문대, 기차마을 관람을 필수 관광 요소로 지정했으며, 이외 체험장소와 시간 등은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 심쿵 여행은 여행사가 관광객을 10명 이상 모으면 떠날 수 있다.

곡성군은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버스 임차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10~19명일 때 10만원, 20~29명 15만원, 30명 이상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곡성군은 심쿵 여행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지도와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면 기념품을 줄 예정이다. 또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와 증기기관차 탑승 요금,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탑승 요금, 천문대 입장료 등을 반값 할인해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객들의 점심은 지역에서 1인당 1만원 이상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구체적인 여행 금액이 결정되면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육과면과 석곡면 등 권역별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곡성 11개 읍·면을 아울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장계호 곡성군 관광정책팀장은 "곡성 심쿵 여행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관광상품"이라며 "여행 내용이 곡성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문 여행 때 군 문화관광해설사가 충분히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어린이날 '특별 관측회' 누리호 만들기 등 체험도

고흥군이 어린이날 연휴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를 운영한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 프로그램으로 별자리 설명과 망원경 관측, 우주왕복선 모형과 누리호 모형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야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 연휴기간 저녁 시간대 이곳을 방문하면, 천체망원경으로 어린이날에는 달을, 이후에는 봄철의 별자리와 화성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국내 최대 800mm 반사 망원경과 동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마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 충의공원 일원에 10만㎡ 규모 호밀밭이 조성돼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곡성군 제공>

## 곡성 동화정원 10만㎡ 호밀밭 초록빛 장관

곡성군은 '섬진강 동화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10만㎡(3만평) 부지에 호밀밭이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의공원 일원에는 섬진강 동화정원이 조성될 방침이다. 곡성군은 해마다 유류 부지에 호밀밭과 꽃단지 등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낮은 구릉지에 조성된 호밀밭에서는 곡성을 시

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동화정원 순환로가 잘 조성돼 있어 걷기에도 좋다. 인근 곡성천 제방에서는 주말마다 '뚝방마켓' 장터가 열린다. 뚝방마켓이 열리는 곡성천 일대에는 흥메밀씨를 뿌려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20~29일)에는 붉은 꽃밭을 만끽할 수 있다. 곡성천에서는 오는 6월9일까지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이 열린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여수시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 LG화학·여수광양항만공사 지원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의 치과 치료를 돕는 '꿈꾸라 희망스마일'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LG화학 윤명훈 주제 임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이 4000만원의 지원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꿈꾸라 희망스마일'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치과의사회, 상봉종합사회복지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98명에게 노인보험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왼쪽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과 정기명 여수시장, LG화학 윤명훈 주제 임원.

에 민·관이 협력의 의미가 더 크다"며 "후원해 준 LG화학,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지난 28일 열린 '광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구성 및 육성을 위한 설명회'에서 김현일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남협동조합 이사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 광양시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법인 9월 설립

### 통합조직 구성·육성 설명회

광양시가 오는 9월까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이괄 법인 설립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광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구성 및 육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경제제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과 원예농산물 연합사업에 참여하는 광양농협, 광양동부농협, 진상농협, 다압농협, 광양원예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 보조사업 요건에 맞추기 위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나섰다. 2024년부터는 정부 지원 보조사업이 일괄 신청·지원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정부의 승인 요건을 갖춘 조직에 한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현일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남협동조합 이사장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을 둔 전문 판매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다. 농산물 유통의 일원화·규모화를 이룰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광양시연합사업단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8가지 생산유통 통합조직 구성안 가운데 적합한 안을 선택해 오는 9월까지 법인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전문 품목을 선정해 생산·유통을 계열화하고 중기(3년)사업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광양시가 지원하는 연합사업단 취급 농산물은 10개 품목가량이다. 지난해 연합사업단의 애호박 매출은 102억5000만원에 달했고, 매실(30억원), 양상추(22억6200만원), 피망(13억3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